### 건강과 수행

## 가래가 생기는 원인과 증상

호흡기의 청소부: 가래

요즘 목 안에 가래가 생겨 이물감으 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가래는 인체 에 필요 없는 불순물로 생각하기 쉽지 만, 기도로 들어오는 불순물을 잡아 기 관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도 한다. 그래서 기래는 기관지에 생기 는 분비물로 몸속 노폐물과 세균이 섞 여 나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면 하루에 100ml 정도의 가래가 분비된 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지나 폐에 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95% 의 수분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대부분의 사람 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가래가 생기 지만, 대부분 이 가래를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삼킨다. 그렇다면 가래

는 마냥 우리 몸에 이롭 기만 할까?

####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물질이 가래가 된다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

들은 숨을 쉬고 싶지 않거나 무조건 방 독면을 써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우 리나라의 공기는 급격하게 오염되고 있다. 매연, 분진,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 여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포함된 공 기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 점액을 자 극하여 분비시킨다. 이때 건강한 사람 이라면 원활하게 가래를 생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호흡기질환과 관련 있 는 염증성 분비물이 생성될 수 있다.

여기서 염증성 분비물이란 점액 형 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가래가 끈끈 해 잘 배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일 반 묽은 농도의 가래와 달리 염증 농도 로 인해 끈끈하므로 수월하게 뱉기 어 려우며 기관지 벽에 달라붙어 심한 이 물감이 생긴다. 이러한 화농성 가래는 만성기침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기

도를 막아 호흡의 불편함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점액이 분비되 기 시작하면 기관지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발생하며 각종 호흡기질환의 원 인이 되기 시작한다. 예들 들어 기관지 염으로 시작해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 성폐질환과 같은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적인 가 래는 색깔과 점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 으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래가 생기거 나 누런색, 푸른색, 녹색의 변화가 있다 면 병변이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다.

기래를 뱉을 때 혹시 피가 나오는 경 우가 있는데 객혈(喀血)이라고 하며 기 침과 함께 섞여 나온다. 약간 가래가 섞 여 나오는 정도에서부터 호흡곤란을 일

> 으킬 만큼의 대량 객 혈이 나오는 등 그 범 위가 굉장히 넓다. 흔 히 폐결핵, 기관지확 장증과 같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미 상당히 약해진 기관지 조직이 강한

기침의 충격으로 인해 혈관벽이 찢어지 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가래를 뱉 을 때 피가 나온다면 질환이 상당히 진 행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위험할 경 우 손상도가 심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 질환이 있는 경우, 즉각 뱉어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래는 묽은 형태로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 어져 있어 삼켜도 무방하다. 그러나 폐 결핵이나 전염성이 있는 균에 감염된 호흡기질환의 경우 가래에서도 비말이 나와 전염을 시킬 수 있으며 그냥 삼키 면 다른 신체에 균을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절대로 삼키지 않도록 하 며 뱉을 때도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에 서 조심히 뱉어야 하다 \*

이승우 기자

# 성경 예언 해설집 〈7회〉

#### 단에 관하여

본문(창 49:16~18)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 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 원을 기다리나이다.

성경의 핵은 단에 관한 예언에 담겨 있 으니 본문 전체가 깊이 숨겨진 관계로 죄 인의 지혜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기독 교 성경학자들이 성경 사전을 편찬하면서 단을 설명하기를 단을 독사, 뱀으로 표현 하였으니 끝날에 적그리스도는 단의 계통 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야곱)의 예언 가운 데 유다에 관한 예언만 중요시하고 다른 지파의 예언은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가 이긴자가 오신 후 야곱의 예언 전체를 설 명하면서 유다를 심판하고 단의 심판권을 증명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 단 지파를 마귀로 오인하고 있음을 낱낱이 밝힌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 을 심판하리라"고 하였는데 12지파는 같 은 민족이나 12부족으로 분리하여 지파의 두령(頭領), 족장(族長)이 통치하였다. 그 런즉 지파의 장(長)이 지파를 치리(治理) 하듯 "그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단 지파 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만백성을 가리킨 것이다.

심판하는 모양은 법관이 법정에서 죄인 을 심판하듯,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는 세상 법관의 모 습이 아니고 이긴자가 온 세상과 싸우는 악조건 하에서 혈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을 왜 독사로 표현하였을까. 뱀은 모 든 사람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동물이다. 산에서 살고 풀숲에 숨어 사는 것이 뱀의 습성인데 왜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있을 까. 독사와 말은 서로 상대하지 않고 싸울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는



히브리어 שומפן (뿔이 달린 독사, shephiphon: homed viper); 성경66권에 '독사'라는 글자가 디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쉐피 폰'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9장 17절에 오직 한 번 사용되었다. 참고로 구원 상징의 뿔 달린 모세(미켈란젤로 조각상)와 비교

것일까. 또한 싸운다면 뱀보다 수백 배 큰 말이 왜 뱀에게 굴복당할까. 힘을 비교하여 도 말이 뱀을 밟으면 짹소리도 못 하고 죽 을 것이다. 본문 내용을 직설적으로 해석하 려면 풀 수가 절대로 없다.

또한 말과 말 탄 자의 정체를 알아야 근 본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독사 는 그리스도요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땅의 길이 아니요 종교 의 길이다. 길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은 진리 싸움이요 종교 전쟁이다.

말과 말 탄 자의 정체는 마지막 때 세상 형편을 조명한 것이니 요한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을 타고 있는 여 자가 말과 말 탄 자의 본체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은 무 자비한 독재자 공산당 세력이요 짐승을 타 고 있는 붉은 빛깔의 옷을 입은 여자는 거 짓 종교로 그리스도 이긴자를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이다.

독사에게 말굽을 물려 말이 거꾸러진 것 은 공산당이 망한 것이니 오늘의 이긴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제일성(第一聲)은 공산 당을 멸한다고 한 것인데 80년대 초에 말씀 한 것이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

세상 사람이 알기로는 공산당과 기독교

는 적대 관계로 알고 있으나 영의 세계를 실펴보면 공산당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하 나님과 대항하고 있으니 현시대 좌익 세

력이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즉 공산당 짐승이 망하였으니 짐승 을 타고 있던 음녀, 거짓 종교도 운명이 임 박하였다. 성경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여 자는 세상과 짝하는 음녀라고 설명하였 다.(계 17장)

본문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 하는 세상 권세, 정권과 교권을 굴복시킨 단 지파의 심판자가 자기를 위협하는 원 수가 있어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단 자손이 3천년 동안 한반도 에서 자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단의 소 원을 표현한 것이다.

#### 요셉에 관하여

본문(창 49:22~26)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도다. 그로부터 이스라 엘의 반석인 목자(牧者)가 나도다. 위로 하 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이로다. 내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에 관하여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 자가 나오고 축복받은 자라고 거듭 말하 였다. 목자라는 말을 광의(廣義)로 해석하 면 구세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요셉 지 파에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세 계적인 구세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요 역 사적으로 요셉 지파는 본문대로 자손이 왕성하여 유일하게 2개 지파의 유업을 전 수하여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급 시대부터 2개 지파로 활동하고 12 지파 중 유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민 2:18~20 참조)

야곱의 가족이 이민하여 애급에서 생활 할 때에 요셉은 12지피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목자로서 성심껏 헌신하였다. 요 셉은 자기를 해롭게 고통 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창 50:20~21)

그런즉 요셉의 일생은 형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을 기르듯이 형제를 사랑하였 다. 요셉의 후손 중에서 40년간 모세를 보 필한 여호수이는 모세의 유업을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였으니 요셉 의 자손 중에서 목자가 출현한 셈이다. 마 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도, 이스라 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요셉의 자 손이니 요셉의 공로가 후손에게 임하였

기타 여섯 아들의 예언은 특별한 의미 가 없으니 설명을 생략한다. 각자의 성품 을 짐승으로 상징하여 나타냈으니 잇시갈 은 나귀로, 납달리는 사슴으로, 벤야민은 이리로 표현하였으니 그 자손들의 살아간 역사가 나귀나 시슴으로 표현한 자손은 순하게, 그리고 사자, 뱀, 이리로 표현한 자 손은 강하고 사납게 살았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2〉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2〉

하늘나라(天國) 극락이 되는 곳은 어 디일까? 1-2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단에게 심판 권을 부여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경에서 석가모니는 미륵부처 가 한국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불경 을 볼까요?

[예] 증일아함경 제44권 십불선품(十不 어디를 말하는 곳일까요? 善品) 제48 (3)

爾時彌勒在家未經幾時便當出家學道 이시미륵재가미경기시 편당출가학도 爾時去鷄頭城不遠有道樹名曰龍華高一由旬 이시거계두성불원 유도수명왈용화고일유순 廣五百步 時彌勒菩薩坐彼樹下成無上道果 광오백보 시미륵보살좌피수하성무상도과

그때 미륵보살은 집에 있는데 때가 되어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는데 그때는 계두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화라는 도나 무(道樹)가 있는데 높이가 일유순이요 넓이가 오백 걸음이니 미륵보살이 저 나 무 아래에서 위없는 도의 열매를 이루시 ∟|---

해설①: 이 말씀은 미륵부처님께서 그 동안 꾸준히 보살도(菩薩道)를 행하였으 나 때가 되어 완성의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나와 도 닦는 장소로 가시는 곳을 알려 주 고 있는 대목입니다.

석존은 경전에서 암시적인 부분의 말씀 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야 석존의 깊고 깊은 비 밀한 말씀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계두성(鷄頭城) 이라는 장소(地名)가 나오는데 계두성은

계두성은 계두국(鷄頭國)의 수도를 말 하는 곳인데 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계두국(鷄頭國)의 유래는 우리나라 삼 국시대 때에 신라의 4대 왕으로 즉위한 탈해왕 동왕 9년에 흰 닭이 울어서 그곳 에 가보니 궤짝에 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신라의 4대왕 즉 탈해왕 이 되었다고 해서 비롯되었고, 그러므로 예전에는 신라를 일러서 계림국(鷄林國) 또는 계두국(鷄頭國)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렀고, 지금도 고서에는 우리나라를 계 림이라고 부르고 탈해왕의 별명이 계두왕 (鷄頭王)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두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지금의



경주 소금강산 남쪽 자락 양지바른 곳에 탈해왕릉 \_ [탈해왕은 우리나라 昔氏(석씨)의 시조이다]

수도인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미륵보살이 드디어 집을 나와 도를 닦는다고 하였으나 지명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 한 말씀은 비밀한 말씀(秘語)이기에 잘 살 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닦는 나무가 있다고 함은 바로 미 륵보살이 불도를 닦는 곳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멀지 않음을 말하는 것 입니다.

해설②: 미륵보살은 소년기 십선도(十 善道)를 스스로 실천했으며 군에서 장교 로 제대하여 당시 대한민국을 요동시켰던

불의 사자라 불렸던 5번째 박태선 장로 (阿閦佛)를 만나서 본격적인 수행을 합니

그러나 본인 혼자 하는 수행은 완전히 나를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므로 박 태선 영모님의 지시로 밀실(密室)에 입주 하여 해와 이긴자 홍권사의 훈육에 따라 본격적인 무아(無我)에 이르는 인간이 참 을 수 없는 고통과 스스로 용맹정진하여 4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성불 (成佛)하셔서 미륵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위대한 일은 혼자서는 결 코이룰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진 딕슨의 마지막 예언



그녀는 1997년 임종을 앞두고 예언 하나를 하였다. 그예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장차 쇠퇴해 갈 것이고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있다. 동방의 어떤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이 세계를 철저하게 개혁할 것이다.

21세기 초에 그는 전 인류를 모아 새롭게 하나 된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의 자혜를 전파할 것이다.

천사의 인류의 자손들이 동방에서 태어난다. 인류를 구원할 희망은 동 방에 있고 서방은 사물의 종결을 대표할 뿐이다.